귀농 · 귀촌인 성공 정착 주력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 상담 전화 개설 등 유입 정책 눈길

무주군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도 살만하고 내일도 올만한 무주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 · 귀촌인 유입 정책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모습)

무주군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도 살만하고 내일도 올만한 무주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 · 귀촌인 유입 정책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은 귀농 · 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전 체험을 활성화하고 정보 기반을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귀농인의 집 조성'과 '전북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 · 귀촌인 유치 지원에 1억 4천만 원을 투입, 빈집 리모델링과 이동식 주택 구입, 임시거주지 및 연수비, 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담기구 운영과 도시민 교육, 멘토 컨설팅 등 귀농 · 귀촌활성화 지원에는 1억 6천만 원을 투입한다.

귀농 · 귀촌 희망자들이 무주 생활과 문화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임시거주시설 4곳을 운영(1억 2천여만 원)하는 데도 내실을 기한다. 공약 사업이기도 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주택(10동)과 텃밭을 기반으로 영농기초 이론 및 실습을 체험하는 곳으로 오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귀농 · 귀촌게스트하우스는 예비 귀농 · 귀촌인이 단기간 거주하며 귀농 · 귀촌 관련 정보를 취득하도록 운영하고 안성면과 무풍면 2곳에서 운영중인 귀농인의 집은 전입 1년 이내의 귀농 · 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 · 귀촌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19세~39세 청년 예비 귀농 · 귀촌인들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조성도 본격화한다. 16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상 2층 규모에 텃밭 16곳과 농기계 창고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귀농 ·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자금 지원에도 눈길이 쏠린다. 10개 사업에 총 1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공약 사업인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6가구 / 월 15만 원씩 최대 12개월)를 비롯해 귀농 · 귀촌인 건축설계비용(10가구 / 가구당 2백만 원)을 지원한다. 노후주택 수리비는 총 10가구를 지원(가구당 6백만 원)한다.

귀농 · 귀촌 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30가구 / 가구당 50만 원)하며 집들이(30가구 / 가구당 30만 원)와 농지취득세(2가구 / 가구당 2백만 원). 농지형상복구비(2가구 / 가구당 2백만 원) 등도 지원한다.

청장년(19~64세) 귀농인들의 농업용 소모성 기자재를 지원(8가구 / 가구당 6백만 원)하는 것을 비롯해 65세 이상 귀농 · 귀촌인들이 영농을 위한 기자재 구입과 주거환경 개선용 집기류 구입 등도 지원(3가구 / 가구당 150만 원)한다.

무주군 출생자 중 타지에서 생활하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다시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향인들의 영농 및 생활도 지원(5가구 / 가구당 6백만 원)한다.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김성옥 과장은 "귀농 · 귀촌 상담과 설문,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 통계화시켜 귀농 · 귀촌 정착률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라며 "귀농 · 귀촌 전용 상담 채널을 개설하고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한 것 또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귀농 · 귀촌 상담 전화는 도시민과 귀농 · 귀촌인들의 상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설(1551-6858 월~금 09:00~18:00)한 것으로, '1551-6858'로 전화하면 무주군 귀농 · 귀촌 관련 정책을 비롯해 각종 지원사업과 정착 관련 애로사항, 창업을 비롯한 주거 지원, 그리고 농업 관련 교육 등 맞춤형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백운지구, 배수 개선 탄력

농림축산식품부 개선 사업 선정… 국비 66억원 확보

진안군은 3일 백운면 백운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배수 개선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며 국비 6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수 개선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 인근에 위치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를 개선함으로써 상습 침수 지역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농경지인 백운지구의 상습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공사와 함께 배수 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현장 행정을 펼쳤으며 그 결과 2025년 기본설계 대상지구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군은 2025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완료까지 4~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앞서 시작한 연장지구(2022년), 대량지구(2023년), 은천지구(2024년)의 배수 개선 사업도 조속히 완료해 재해로부터 군민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영농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재해 발생 예방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내 침수 피해 지역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수 개선 사업 지구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챌린지 동참

전춘성 진안군수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달 31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GBCH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성공적인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도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한 응원 릴레이로 'GBCH'는 유치 슬로건인 'Go Beyound, Create Harmony'의 약자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작으로 주요 인사들의 릴레이 형식 참여로 지역 주민들이 올림픽 유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힘을 모아 전북이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취지로 시작됐다.

진안군은 지난해 말 '진안군 장애인 체육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2025년 신년 인사회'와 '2025년 읍면 연초 방문' 등을 통해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하여 군민들과 함께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춘성 군수는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에 유치되어 전북특별자치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의원 7인 전원

장수군의회가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GBCH챌린지'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전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3일 장수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최한주 의장이 최훈식 장수군수로부터 지목을 받아 GBCH 응원 챌린지에 동참한 데 이어 유경자 부의장,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 김남수 산업건설위원장, 한국희 의원, 장정복 의원, 이종섭 의원 등 장수군의회 의원 7인 모두가 잇달아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지역 여론에 불을 지폈다.

응원 챌린지를 수행한 후, 후속주자로 각 기관과 시민단체 등을 지목한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2036 전북 올림픽 유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입을 모으면서 "우리 장수군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함께 모아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GBCH'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슬로건인 "Go Beyound, Create Harmony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머리글을 딴 단어로, '도민의 뜻모아! 힘모아!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GBCH 응원 챌린지'는 국내 후보 도시가 결정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이 'GBCH 챌린지'에 동참하며,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GBCH 챌린지'는 하계올림픽 유치 구호인 'Go Beyou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줄임말로, 지역 주민들에게 올림픽 유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림픽 유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범도민 캠페인이다.

동창옥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2036 하계올림픽 개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창옥 의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농업용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무주군이 드론 활용 기술 확대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도 농업용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상 · 하반기)을 운영할 예정으로 오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3주간 모의비행 요령 등의 이론교육(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정보화 교육장)을 비롯해 기본 및 숙달 비행 등 실기교육(반딧불 드론 교육원)을 진행한다.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내 거주 농업인, 운전 면허 2종 이상을 소지한 농업인 등이 참여하게 될 이번 교육은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종자 파종 등 폭넓게 활용이 가능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 배진수 팀장은 "무주군에서는 2019년도부터 드비를 확보해 농업용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교육을 받은 81명 중 70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활용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자부담 50만 원(1인 당)를 포함해 사업비 2천만 원(1인당 교육비 150만 원 지원)을 투입한다"라며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을사년 설맞이 합동세배 개최

장수군은 지난달 31일 산서면과 계남면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합동세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 · 효 · 예의 전통을 계승하고 어르신들께 공감을 표하며 지역사회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함께 자리해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고 건강한 한해를 기원하는 덕담을 나눴다.

최훈식 군수는 "을사년 푸른뱀의 기운을 담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며 "새해에도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